



로완 윌리엄스의 샤리아 법에 관한 강연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Rowan Williams Lecture on Sharia Law :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저자
(Authors) 김창환
Sebastian Kim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2018.3, 41-85(45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19331>

APA Style 김창환 (2018). 로완 윌리엄스의 샤리아 법에 관한 강연. Muslim-Christian Encounter, 11(1), 41-85

이용정보
220.67.255.***
2021/02/08 11:04:49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로완 윌리엄스의 샤리아 법에 관한 강연: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김창환*

- I. 서론
- II. 공공영역과 공공신학에 대한 신학적 근거
- III. 샤리아 법에 대한 로완 윌리엄스의 강연에 대한 논쟁
- IV. 샤리아 법에 대한 강연과 교회의 공적인 참여와 관련된 문제들
- V. 결론

* 풀러신학교 코리안 센터 원장, 신학과 공공영역 교수

I. 서론

최근에 와서 교회의 공적 참여가 신학계와 교회에서 자주 토의되고 있는데, 교회의 공공권에서의 참여는 공공권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함께 사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적인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교회의 공적참여는 새로운 논제가 아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했으며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서구사회는 교인의 급속적인 축소와 함께 교회의 영향력이 공공권에서 물러나게되며, 찰스 테일러가(Charles Taylor)가 주장하는 secular age¹를 넘어서 프랑스의 *laïcité*를 비롯한 서구 유럽에서 추진되는 과격한 세속화 시대에서 교회의 영역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당하게 된다.² 이 문제는 비단 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 교회가 직면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공성은 현재 신학계가 다루는 이슈이며, 특히 한국에서의 상황은 이와 더불어 교회의 공공성의 결여로 인한 여러가지 신뢰도와 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공인력의 상실에 대해서 토의가 되고 있으며³ 이러한 주제는 한국에서의 공공신학의 관심사가 된다.

공공신학의 주요 담론은 기독교 신학의 토론장이 교회나 기독교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적인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기독교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 참여하여 기독교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통해서 사회전반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가 사회, 정치,

1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Harvard: Harvard UP, 2007).

2 참조 Jennifer A. Selby, *Questioning French Secularism* (New York: Palgrave, 2012).

3 참조 Sebastian Kim & Kirtseen Kim,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P, 2015), 274-290.

경제 전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영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므로 해결점을 비기독교인들과 상호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가 단지 윤리적 혹은 영적 우위적인 위치에서 비평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겸손한 동반자의 위치에 서서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신학의 중요한 담론은 공적인 대화(public conversation)라고 볼 수 있다. 이 소고에서는 먼저 공공신학의 주요 논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후에 영국에서 있었던 샤리아 법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비평하고자 한다.

II. 공공영역과 공공신학에 대한 신학적 근거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화란 학자 에드워드 스킬리빅스(Edward Schillebeeckx)의 논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프랑크 프루트 학파(Frankfurth School)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학을 전개하는데, 학문에서 이론을 정립하는 목적은 단지 어떠한 논제에 대한 올바른 깊이있는 이해만이 아닌, 사회 및 정치적 조건을 창조하여 종국적으로 인류의 증진과 사회개혁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킬리빅스는 이러한 비판이론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천을 복합한 신학을 추구해야하며 더 나아가서 단지 순수한 철학적, 신학적 해석학은 현실적 적용이 따르지 않는 한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는 신학은 '이 세상과 교회에서 적용되는 비평적이고 자기의식적

인 기독교인의 행동'이라고 보았다.⁴ 이 논제는 공공신학의 발전에 여러모로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공공신학의 용어적 정의와 신학적 발전은 1970년대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주장한 공적교회(public church)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의 존 머리(John Courtney Murray)⁵, 데이비드 홀렌바흐(David Hollenbach)⁶,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⁷, 리차드 뉴하우스(Richard John Neuhaus)⁸,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⁹, 린넬 케디(Linell Cady)¹⁰, 그리고 로날드 티만(Ronald F. Thiemann)¹¹를 통해서 발전되고 그 후에는 유럽, 남아공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GNPT (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라는 학회가 *Internat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라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공공신학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 외 각지역별로는 독자적으로 공공신학이 그 상황

4 Robert J.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An Orientation to His Thought," in Robert Schreiter, *The Schillebeeckx Reader*, 18–19; Edward Schillebeeckx, *The Understanding of Faith*, 142, 154. See also Schreiter, "Edward Schillebeeckx," in David Ford ed, *Modern Theologians*, 152–161, *The Schillebeeckx Reader*, 111–119.

5 *We Hold These Truths: A Catholic Reflections on the American Proposition* (New York: Sheed and Ward, 1960).

6 David Hollenbach, "Public Theology in America: Some Questions for Catholicism After John Courtney Murray," *Theological Studies* 37/2 (June 1976); David Hollenbach,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Politics, Human Rights, and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7 David Tracy,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Crossroad, 1981).

8 Richard John Neuhaus, *The Naked Public Square: Religion and Democracy in America* 2nd e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6).

9 Max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10 Linell E. Cady, *Religion, Theology and American Public Life*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11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John Knox Press: Louisville, Kentucky, 1991).

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장신대에 있는 ‘공적신학과 교회 연구소’가 이를 주도한다.

이들 학자들의 중요한 논제를 예를 들면, 율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그의 저서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를 통해 공적 연관성 없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없으며 신학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없이 공적 연관성은 없다고 선언한다. 또한 신학이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것과 같이 공적, 비평적, 예언적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학이 공적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학은 주어진 사회 안에서 소외된 존재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이 됨으로써, 또한 존재하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비평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보편적 관심을 표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신학은 신학이 특정한 영역으로 혹은 사적인 좁은 범위로 한정될 것을 강요하는 세속주의의 경향을 거부하는 담론이라고 보았다.¹² 몰트만이 주장하는 공공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빈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에서의 비평적이고 예언적이고, 반성적이며 논리적인 신학의 추구를 의미한다.

로날드 티만(Ronald F. Thiemann)은 보다 실용적인 견해에서 공공신학을 기독교적 신념과 더욱 광범위한 사회 사이의 관계 및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가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의 비교연구적인 관점에서, 공공신학의 최종목표는 하나님 나라, 교회 및 사회를 연결하는 종합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및 세속화된 소비사회

12 Jürgen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Press, 1999), 5-23.

와 같은 현대의 공공생활의 특징이 되는 관습과 기독교적 신념이 교차하는 특정한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 그는 대중과 교회 사이의 공통적인 영역을 추구하고, 추구하는 점은 기독교와 세속주의와의 단순한 연결이 아닌, 두 분야의 관계성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상호 비평적 분석이라고 여긴다. 그는 깊은 신앙적 신념에서 나오는 비평적 연구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지적, 영적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학은 공동체 적이고 공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실제로 신학이 신앙에 바탕을 두었지만 비평적인 관점에서 발전되었으므로 이것이 현재에도 다양한 영역에 계속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¹³

마찬가지로, 더 광범위한 대중 토의에서 신학의 학문 수용에 대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린넬 케이디(Linell E. Cady)는 공공 신학을 현대적 신학이 당면하는 공공권에서의 소외 시 당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공공생활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신학은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고심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공적인 논증의 형식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디는 공공권에서의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하고 도전하여야 함을 역설하는데, 한가지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의견으로, 공공권에서의 종교적 관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관점과 함께 오직 세속적인 논증이 공공권에서 수용된다는 이론과, 다른 한가지는 신학이 갖고있는 편협성과 우월성 그리고 배타적인 경향을 벗어나서 개몽주의적 비평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공공신

13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1).

학은 현대사회의 공적 및 사적 영역의 양분론에 이의를 제기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공공신학 연구에 대한 글에서 헤롤드 브라이텐버거(E. Harold Breitenberg)는 학자들 사이의 여러가지 다른 견해를 지적하였다.¹⁵ 그는 한쪽에는 정치적 권력, 정부 및 사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과 신성 사이의 관계와 연관된 시민종교 혹은 공적종교(civil religion or public religion)와 공공신학의 유사성을 토의하는 반면에, 시민종교의 주요 관심은 국가와 국민에 있고 공공신학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서 시작함으로 구분한다. 시민종교는 공적인 삶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특히 공적종교는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종교적 지지자와 세속적 지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공신학은 종교적 공동체의 관점과 특별한 신앙전통에 바탕을 두고 신학적 개념의 공적 의미와 해설을 취급하여 종종 정부 정책에 비평적인 신학적 반영을 다루게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신학과 유사하지만 공공신학은 정치뿐 아니라 광범위한 공적 생활을 취급한다고 보았다. 브라이텐버거는 공공신학을 종교적으로 알려진 담론으로, 자신의 종교적 전통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동시에 외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설득력 있는 신학이라고 규정한다. 공공신학은 종교적 공동체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논쟁의 근원, 언어, 방식이 모두에게 개방적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종교적 공동체와 일반적 대중에게 대체적으로 사회에 설득력 있을 수 있고 평가되고 판단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되는 공적주제에 대한 중

14 Linell E. Cady, *Religion, Theology and American Public Lif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147.

15 E. Harold Breitenberg, "To Tell the Truth: Will the Real Public Theology Please Stand Up?,"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vol.23, no.2 (2003): 55-96.

교적으로 알려진 담론이라 본다. 그에게 있어 공공 신학은 중요성은 공적생활과 공익에 있어 기독교적 믿음과 관습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의 활동에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¹⁶

위의 학자들과 그 외 공공 신학에 관심 있는 학자들로 부터 제시된 논제를 반영하여¹⁷ 공공신학의 근거와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평가적, 비평적 본질을 가지고 그 맥락이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학연구의 결과는 기독교 공동체 외의 광범위한 대중에게 적용 가능하다. 던컨 포레스터(Duncan Forrester)는 공적 논쟁을 중단하는 것은 신학의 심각한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¹⁸ 둘째, 신학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공적 토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의 독특한 관점 때문에 신학적 결과가 공적 주제에 사실상 깊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과 ‘사적’의 이분법은 공공신학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신학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단지 공적인 주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합치 않으며 ‘public’은 신학을 하는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신학의 열림(openness)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과 열린 담론과 관련

16 Breitenberg, "To Tell the Truth," 64-67.

17 See William Storrar & Andrew Morton, eds.,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 New York: T & T Clark, 2004); John Atherton, *Public Theology for Changing Times* (London: SPCK, 2000); Michael J. Himes, & Kenneth R. Himes *Fullness of Faith: the Public Significance of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93); Benjamin Valentin, *Mapping Public Theology: Beyond Culture,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Continuum, 2002).

18 Duncan B. Forrester, *On Human Worth: A Christian Vindication of Equality* (London: SCM Press, 2001), 72-74.

이 있다. 넷째, 대중 신학의 건전한 발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신학의 공적 유용성에 대해서 기독교공동체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 담론에서 신학적인 시야를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일반적인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다섯째로, 공공영역에서의 교회의 진실과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위해서, 교회는 단지 실용적인 접근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하며, 외양이나, 숫자나 결과만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지양해야한다. 교회의 공적참여에 있어서 단지 상황에 맞추어서 단순적인 시도가 아니고 보다 비평적이고 신학적인 원칙과 방법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함에 공공신학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공권’ 혹은 ‘공적영역’이라는 개념은 율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의해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에서 학문적으로 제시되었다.¹⁹ 하버마스는 ‘공공권’을 국가 및 시장 경제가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공개 토론의 장으로 간주하였다.²⁰ 그는 18세기 유럽에서의 상황을 연구하면서 공공권이 정부와 경제체제 그리고 법률체제가 주관하는 영역과 이에 반해서 가족과 소규모 사회공동체가 주 구성요원인 개인적인 영역 사이에 공공권을 형성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왔고,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비 정기적으로 모이는 중산층 그룹들에 의해서 카페에서의 토론, 다양한 인쇄매체를 통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서 사회, 경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시도가 현대의 시민사회의 출발이며 이러한 영역을 공공권이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공공권은 세가지 권리

19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 Thomas Burger (Cambridge: Polity, 1989; original publication in German in 1962).

20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141.

의 인식에 근거해서 형성되어 진다: 첫째, 연설 및 의견 표시의 자유,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을 통한 비판적인 토론 및 정치적 표현; 둘째, 개인 자유 및 가정불가침의 권리; 셋째, 법 앞에 평등한 개인 소유의 권리이다. 더 나아가서 공공권의 개념은 보편적 참여(universal access)와 비평적인 문의(critical inquiry)를 근거로 하고 있다.²¹ 그는 이러한 공공권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 정부와 각종 정치단체 그리고 시장체제의 확장과 함께 대중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으나 한편 시민단체 혹은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되어진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의 초기 이론적 체계는 남성 중산층 사회를 근거로 하고 자유민주체제 사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이론은 페미니스트와 다른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고, 복수사회로 구성된 현대의 복잡한 상황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그의 견해가 수정되어야 했다.²²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하버마스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그의 논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근거를 두고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회에 적용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하버마스의 문제점은 그가 공공권에서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공권이라는 개념자체가 단일적이지 않고 복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의 선(common good)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각 단체들의 이익추구로 인해서 항상 비평적인 견해를 통해서 수용해야 하는점, 그리고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시민사회를 통한 공공권은 항상 정부와 정치권에 비해서 단지 의견을

21 Ibid., 83-85.

22 참조Craig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1992); Nick Crossley and John Michael Roberts, eds., *After Habermas: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 (Oxford: Blackwell, 2004).

제출하는 소수의 목소리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 그외 여러 학자들의 비평이 있으며²⁴ 특히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양분을 야기하는 듯한 공공성의 담론에는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하바마스의 ‘공공권’ 이론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참여(universal access)와 비평적 문의(critical inquiry)는 공공신학의 논제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해서 몇몇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는 공공권을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인 네개의 그룹으로 본 반면,²⁵ 더키 스미트(Dirkie Smit)는 정치적 공간, 경제적 공간, 시민사회 그리고 공공영역을 공공신학의 네가지 특징적인 담론으로 보았다.²⁶ 이런 영역들의 신학적인 응용을 위해서, 알리슨 에리어트(Alison Elliot)는 얼마나 공공신학을 실천함으로써 역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연구하며 특히 세가지 다른 공공의 특징들을 신학과 연결시켜서 보았다. 제도적 공공권(institutional public), 구성적 공공권(constructed public) 그리고 개인적 공공권(personal public)

23 Fraser,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109–42. See also Nancy Fraser, “Transnationalizing the Public Sphere: On the Legitimacy and Efficacy of Public Opinion in a Post-Westphalian World,” *Theory, Culture & Society*, vol.24, no.4 (2007): 7–30.

24 James G. Finlayson, *Haberma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UP, 2005), 13–14; Andreas Koller, “The Public Sphere and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An Introduction,” *Social Science History*, vol.34, no.3 (2010): 261–290 at 262–63; Janelle Reinelt,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for a Global Age,” *Performance Research* vol.16, no.2 (2011): 16–27 at 17–18. See also Areto, A., and J.L. Cohe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1992); Christina Fiig, “A Powerful, Opinion-Forming Public? Rethinking the Habermasian Public Sphere in a Perspective of Feminist Theory and Citizenship,”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12, no.3 (2011): 291–308. Janelle Reinelt,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for a Global Age,” *Performance Research* vol.16, no.22 (2011): 16–27.

25 Max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Ethical Judgement,” *Theology Today*, vol.54, no.2(1997): 165–79.

26 Dirkie Smit in Nico Koopman, “Some Comments on Public Theology Toda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17 (November 2003): 3–19.

인데 이것은 각각 교회와 믿음의 다른 신학적인 가정으로부터 유추해 낸 것이다.²⁷ 하바마스 이외의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제시된 제안을 고려하여 저자는 사회의 공공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에 대해서 여섯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 시장, 미디어, 학계, 시민사회 및 종교적 공동체 인 것이다.

신학은 학계(대학과 신학대학) 그리고 교회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공공신학은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른 네 그룹과 교류하며 공공권 내에서 신학의 역할을 신중하게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신학의 확장개념은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신학적 담론이 최근에 시도되었는데 정치 신학 및 해방신학이 두 가지 예라고 볼 수 있다. 사회윤리학과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공적영역에서의 신학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며, 공공신학자들은 다양한 신학의 전공분야에 있으며 한편 본인의 전공분야에서 공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신학과 타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할 때 어려운 점은 주로 신학적 상호작용의 근원과 청중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이며 신학이 다른 기관과 학교 학문으로부터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반면 다른 학문기관은 신학의 연구결과와 연관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든 관련 학문과의 대화체적 공적 관계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권내의 다른 단체의 공공권에서의 기여를 위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유형을 유지하며 공통적 영역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는 정부와 그리고 일반 사회와 참여할 수있는 적절한 모델과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27 Alison Elliot, "Doing Theology: Engaging th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3-4, 290-305.

일반 대중의 교회에 대한 기대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적 인물로 간주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전이 된다. 지난 2008년 2월, 당시 성공회 대주교였고 신학자인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는 “영국에서의 시민, 종교법”이라는 주제로 한 그의 강연을 통해서 이슬람 샤리아법이 영국법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샤리아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개념과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여론으로 그 강연은 사회 각 계층으로부터 비판 받았는데, 실제로 강연내용을 보면 그가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음을 본다. 그는 상호작용적 다원성(interactive pluralism)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는 두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한가지는 정부와 사회가 교회(다른 종교단체를 포함한)를 향한 열린 정책을 적용하여 교회가 공적인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 교회 및 종교단체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교회는 “공적인 교회” 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참여와 비평 그리고 공동의 선(common good)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교회가 종종 소유하는 모순점과 위선 그리고 편협한 세계관에 대한 자아비평(self-criticism)을 끊임없이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로완 윌리엄스의 강의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비평하고자 한다.

Ⅲ. 샤리아 법에 대한 로완 윌리엄스의 강연에 대한 논쟁

로완 윌리엄스는 뛰어난 신학자이자 학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www.kci.go.kr

깊은 견해와 겸손함과 경건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교회와 세계에 대한 신학자의 책임에 대한 사려깊은 헌신과 함께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다.²⁸ 윌리엄스는 그가 성공회 대주교로 있었을 때, 특히 세속주의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성과, 현대 사회에서 무슬림들과 같은 소수 종교인들의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관해 그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책임과 정의에 대해 존중하고 정당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교회가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구하는 인류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교회는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 신뢰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였다.²⁹

1. 대주교의 샤리아 법에 관한 강연

샤리아 법에 대해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강연한 “종교의 관점에서 본 영국의 시민법과 종교법”은 논쟁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 강연에서 대주교는 샤리아 법의 일부분(가정법 등)을 영국의 법률 제도에 채택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때

28 *Christian Century* (July 31–August 13, 2002), 12; Todd Breyfogle, “Time and Transformation: A Conversation with Rowan Williams,” *Cross Currents* (Fall 1995): 293–311 at 293; Tina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sharia_law_uk (accessed 29 January 2018),

29 Rowan Williams,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137/archbishops-lecture-civil-and-religious-law-in-england-a-religious-perspective> (accessed 20 January 2018).

문에 언론, 정치인 및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심하게 비판 받았다. 그가 강연 전에 가졌던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샤리아 법의 적용이 특정 상황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대답했을 때부터 논쟁이 시작되었다.³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샤리아 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서 그의 제안은 강연 후 매우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강연내용을 지지하는 논평자들은 초기의 강연에 대한 비판이 매우 불공평했으며 많은 경우에 그의 강연을 오독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그의 강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연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세속국가 내에서 종교 단체의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특히 영국의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샤리아 법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둘째, 다원주의 사회의 맥락에서 세속 국가의 법적 독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며, 이것은 사실 계몽주의의 정신에 어긋나며, 다양한 신념과 사상을 가진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셋째, 그의 제안에 대한 세가지 가능한 이의 제기에 대처하고 그의 핵심 논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에 보완적인 법체계가 도움이 되는 “상호 작용적 다원성”을 주장한다.³¹ 대주교의 이러한 다양한 보완적 법률 체제를 적용하려는 제안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예를 들면 인도에서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에 적용되는 가정

30 17,000 Viewers Contacted BBC's Online Message Board – *The Sunday Times*, 10 February 2008.

31 Good Discussions of The Lecture, see Mike Higton, “Rowan Williams and Sharia: Defending the Secula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vol.2, no.4 (2008): 400–17; Jonathan Chaplin, “Legal Monism and Religious Pluralism: Rowan Williams on Religion, Loyalty and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vol.2, no.4 (2008): 418–41.

법), 그리고 영국에서(예를 들면 유대교의 이혼법의 유대사회에서의 적용) 시행되고 있지만, 성공회의 대주교가 샤리아 법을 영국의 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제안은 영국사회에서 크게 반발을 일으켰다. 한 기자는 어떻게 해서 한 강연이 진보주의자, 보수파, 대부분의 무슬림들, 대부분의 기독교인, 모든 세속 주의자, 모든 정당의 반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하고 질문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이 대주교의 주장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³²

이 강연에서 윌리엄스는 영국 사회에서 종교적 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법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강연 목표가 이슬람 율법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공정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무엇이 수반 될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함께, 세속 국가 내에서 종교 단체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루고자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샤리아 법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고, 샤리아가 여전히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경직된 교리가 아니며, 그가 샤리아 법을 영국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샤리아 법과 일반법의 이중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은 하나의 독립적인 관계 또는 소속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세속 정부가 법을 통하여 공공 및 정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에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것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첫째, 균일한 법의 획일적인 지배하에서는 다른 관계성이나 종교성 혹은 행동 양식의 차이점 들은 사적 영역과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제한 당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상황은 믿음을 가진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은,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신자들의 이

32 Andrew Brown, *The Guardian*, 9 Feb 2008.

성적인 판단해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샤리아 법을 영국 법에 적용하려는 그의 제안에 대한 세가지 가능한 반대의견을 예견하며 그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해결점을 또한 제시했다. 첫째, 배타적인 종교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권리에 대해서 주장이 강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대주교는 보다 성숙된 샤리아 법정의 설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샤리아 법의 적용으로 인한 “보충적인 관할권”의 인정이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적 또는 역행적 요소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대주교는 이 문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보충적인 관할권이 그들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슬림들 누구든지 샤리아 법과 영국 법에 대한 개방된 접근권을 가져야하며, 두 제도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법적인 독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보편적 권리에 관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법이 법이라는 근거에 확실하게 달려 있다고 본다. 그는 법의 독점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법정 앞에 서서 똑같은 조건으로 서있기 때문에 서구 적법성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교의 정체성이나, 보완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윌리엄스는 계몽주의의 주요한 공헌이 독점적 종교적 권위를 제거하고 공개적 논증과 대다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법률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계몽주의 정신에 근거해서 이

리한 법적인 독점에 도전한다. 그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 또는 존엄의 교리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무비판적으로 세속적인 법률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위해서 서구에서 시작된 운동이 근거가 된 본질적인 자유함이 다시 법의 틀에 독점 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단일한 견해나 사상을 가지지 않고, 여러가지 단체나 이론, 사상에 소속되어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한 가지의 견해(세속적 견해)가 공공영역에서 받아들여지고, 그외의 다른 어떤 사상이나 신앙이 단지 개인적으로 여겨지고 공적인 결정이나 의견수렴에서 제외된다면 사회전체로 보아서 큰 손실이라고 여겼다. 특정 종류의 관심과 추론이 사적인 영역에서 머물게 되고 결코 공유된 일반 토의에서 일반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계몽주의의 사상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의 견해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확립된 특정 공동체 또는 세속 정부에 의한 독점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 각 구성원은 공통된 프로젝트를 형성 할 때 자신의 견해를 피력 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며, 사회의 행복과 질서를 위해서 그는 한 단체나 정부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률에 대해서도 상호 경쟁성과 비평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호 작용적 다원성”을 적용하게 되기를 제안한다.

2. 강연에 대한 비평과 지지

그의 강연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인 의견은 그 당시 야당인 보

www.kci.go.kr

수파와 자유당 그리고 대부분 언론 매체에서 나왔는데: 기사의 제목을 예를 들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제안”, “법과 종교의 부정 한 혼합”, “믿음의 수호자 (대주교) 의 판단력 결여”³³, “윌리엄스는 위험하고 그의 의견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³⁴ “대주교는 반역죄에 상당하는 잘못을 하였다”³⁵, “율법과 믿음 간의 전쟁”, “윌리엄스는 잘못이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의제는 토의할 가치가 있다”³⁶, “사회적 응집력의 측면에서 절망적인 견해”³⁷, “다문화 주의에 대한 공격”등이다.³⁸ 전직 대주교 조지 캐리(George Carey)와 추기경 머피 오코너(Murphy O’ Connor)조차도 강연에 비판적인 것처럼 보였다.³⁹ 간추리면, 비판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샤리아 법에 대한 대주교의 긍정적인 평가는 많은 반대 의견을 야기하게 되었다. 샤리아 법에 대한 영국에서의 보편적인 개념은 시대착오적, 여성 혐오적, 잔인하고 이질적이라고 보며, 파트와(fatwas) 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무지한 처형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샤리아 법에 대한 이슬람 옹호론자들이 영국에서 샤리아 법이 보편적이고 완전하게 시행되기를 원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두려움도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⁰ 비판의 두 번째 내용은, 강연이 명확하지 않고 샤리아 법이 왜 영국의 법률에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명

33 *The Sunday Telegraph*, 10 February 2008.

34 *The Times*, 9 February 2008.

35 *The Times*, 10 February 2008.

36 *The Observer*, 10 February 2008.

37 David Blunkett in Janes Sturcke, at el. *The Guardian*, 8 February 2008; Sayeeda Warsi, *The Sunday Telegraph*, 10 February 2008; Matthew d’ Ancona, *The Sunday Telegraph*, 10 Feb 2008.

38 Johann Hari, *The Independent*, 11 February 2008.

39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513351/Two-powerful-clergy-Britain-launch-stinging-attack-Archbishop-sharia-row.html> (accessed 15 January 2018)

40 Andrew Brown, *The Guardian*, 9 Feb 2008.

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¹ 또한, 그들이 지적하는 점은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동 떨어진 지적 오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⁴² 셋째, 대주교는 이런 종교와 법률간의 다양성을 주장함으로 오히려 여성과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다른 취약한 구성원들의 선택을 제한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고 보았다.⁴³ 넷째, 합법적인 다원성이라는 급진적인 제안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동일한 법 아래에서의 평등의 중요성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졌다. 강연 자체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매우 잘 전개를 했지만, 급진적인 제안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반대하게 된다.⁴⁴ 특히 수세기동안 오랜 투쟁을 통해서 값지게 얻은 법률체도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기본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강연에 대한 지지는 일부 신학자 및 교회 지도자들 인데 그들 대다수는 언론과 일반 대중이 신중하게 강연을 숙지하지 않고 단지 샤리아 법에 대한 편견된 선입관을 가지고 대주교를 비판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첫째, 그들은 언론을 비판했다. 문제가 확장된 것은 샤리아 법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결합된 언론의 냉대주의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믿었다.⁴⁶ 언론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민간인의 공개 토론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주제에 대해 무분별적인 공격으로 묘사되었으며 대주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보았다. 둘째, 그들은 세속사회에서 종교 공동체의 자리를 찾으려는 대주교의 노

41 Minette Marrin, *The Sunday Times*, 10 Feb 2008.

42 Ruth Gledhill, *The Times* 11 Feb 2008; Joan Smith, *The Independent*, 10 Feb 2008.

43 Matthew d'Ancona, *Sunday Telegraph*, 10 Feb 2008.

44 Andrew Anthony, *The Observer*, 10 Feb 2008.

45 Minette Marrin, *The Sunday Times*, 10 Feb 2008.

46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Jonathan Chaplin, "Legal Monism and Religious Pluralism," 419.

력을 지지했다. 이 강연은 법에 대한 계몽주의의 추상적 보편성의 개념과, 이에 대한 종교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가치와 정체성에 의거한 법의 정당성과 독점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았다.⁴⁷ 강연은 법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정치 사회에 속하는 여러 종교 및 다양한 공동체들을 포용하고자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점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졌다. 또 다른 학자들은 종교 공동체가 더 건강한 상호 교류를 위해 더 넓은 사회에서의 참여에 책임을 지는 점이 강연에서 강조가 되었다고 본다. 셋째, 그들은 논쟁이 법적 일원주의와 상호작용적 다원성에 관한 논쟁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법적 일원론(독점론)이 어떻게 종교 다원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려 깊은 탐구로 간주하였으며, 대주교는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깊이있는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적 소수 공동체가 공공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제시를 하였다고 보았다.⁴⁸ 그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법과 종교가 다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았는데, 법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실제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여러가지 사례로 보아서 바른 견해가 아닐 뿐 아니라, 이러한 상호 배타적인 이분적인 영역에 대한 관점은 정부와 세속 사회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같이 극복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았다.

47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48 Chaplin, "Legal Monism and Religious Pluralism," 420 & 423

IV. 샤리아 법에 대한 강연과 교회의 공적인 참여와 관련된 문제들

위의 논쟁을 검토하면서, 우리는 고려해야 할 네가지 주요 쟁점, 즉 대주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성을 토론하고자 한다. 그것은 공적영역에 대한 교회의 참여, 공개 토론에서 미디어의 역할, 법률의 독점적 적용과 “상호작용적 다원성” 문제, 그리고 샤리아 법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 등이다.

1. 공적영역에 대한 교회의 참여

이 문제는 종교 지도자인 대주교가 나라의 법률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 하는지,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가 이슬람을 대신해서 무슬림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대주교는 강연 며칠 후 그가 기독교 지도자로서 다른 종교 공동체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공공의 영역에서 토론을 주관하는 것은 종교지도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물론 영국에서의 성공회 목사와 주교는 국교로서의 성공회가 영국 사회의 공공역할을 수행하며 영국 정치에도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수있다. 하지만 대주교의 강연을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었다. 교회의 대중 참여에 관한 대주교의 견해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최근 저서 중 일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주교로 임명된지 첫 번째 가진 기자 회견에서 그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현대사회에서 대중적

49 “Presidential Address,” *The Church Times*, 15 February 2008.

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하였다. 그는 기독교가 현실 문화에 대한 상상력을 포착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조를 탐구하고 에너지를 축출하는데 적합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대주교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는 그의 역할을 국가 전체와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도덕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서의 공개 토론에 책임 있는 공헌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⁵⁰

월리엄스의 글을 살펴보면 사회 및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 영역에서 신앙 공동체의 자리매김이라고 볼 수 있다. ‘세속주의, 신앙과 자유’에 관한 강연에서 월리엄스는 대중의 신앙 개입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는 세속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적 이성’(자유, 평등, 추론 및 증거)에 대한 개념과 일반 대중의 공평한 토론은 종교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견해가 금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이론을 전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세속적인 이성적 접근만이 공정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다고 보며 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무비판적인 생각이 상황을 단순화하고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어떠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토론에서든지 사람들이 갖고있는 근본적인 신념에서 그들의 관점과 정책을 분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빈약한 이해에서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공공 및 정치적 협상의 토론 영역이 다수자에 의해서 그리고 다수자의 견해를 수용하는데 치중하여, 공공 영역의 소위 중립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수자와

50 http://www.guardian.co.uk/world/2006/mar/21/religion_uk (accessed 5 January 2018).

종교를 가진 이들의 견해가 무시된다면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⁵¹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종교의 자리매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공적생활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신앙의 목소리가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공공에서의 가시성(public visibility)은 공공 영역에서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매김과 더불어, 정부와 개인에게 공공의 질서를 보다 도덕적으로 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건전한 민주주의는 정부가 그 권한 아래에 있지 않는 신앙공동체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성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⁵²

다시 강연으로 돌아와서 토론할 내용은, 사회에서의 비판으로 교회의 영역이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현대 세속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대주교가 주장하는 교회의 공공적 역할이 옳다고 본다. 정치학자 비쿠 파레크(Bhikhu Parekh)은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세속 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와 관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고 세속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토론과 심의를 수행하는데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세속적인 견해가 종교인을 차별하고 평등한 시민권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51 Rowan Williams,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137/archbishops-lecture-civil-and-religious-law-in-england-a-religious-perspective> (accessed 20 January 2018).

52 Rowan Williams,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137/archbishops-lecture-civil-and-religious-law-in-england-a-religious-perspective> (accessed 20 January 2018).

이것은 비 민주적이며 많은 시민들을 공적 토론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오히려 종교적인 시민들을 정치 체제로부터 멀어지게하고 배타적인 위치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았다.⁵³ 파레크는 종교가 국가에 대해 가치있는 균형추를 제공하고, 도덕과 헌신의 대안적인 출처를 보여준다고 보았다.⁵⁴ 이 내용은 몰트만이 주장한대로 교회가 주어진 사회 안에서 소외된 존재와 가난한자들을 위해서 정치적이 됨으로써, 또한 존재하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비평적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인지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⁵⁵

2. 공적 토론에서 미디어의 역할

샤리아 법에 대한 강연에 대한 토론에서 대주교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비판이 미디어의 역할과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공적 토론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로부터의 강의에 대한 초기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며 이것은 계속 지속 되었다. 어떤 언론들은 심지어 윌리엄스가 대주교로서의 직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혹은 사임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대중의 인기에도 영합하고, 기사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53 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Palgrave, 2000), 323-24.

54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328-30.

55 Jürgen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Press, 1999), 1-3.

서 샤리아 법의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실제로 대주교가 제시하는 핵심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파에 속한 언론은 이슬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남성우월주의 또는 야만적인 종교로 표현하였다.⁵⁶ 대주교의 강연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언론들의 반응은 부적절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극하여 지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을 조성하지 못하고 소수종교 공동체에 대한 경멸과 무시함을 부각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또한 현대의 영국사회가 세속화로 전환하면서 종교에 대한 어떤 면에도 타협치 않으려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며 영국사회가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다.⁵⁷

윌리엄스는 그가 대주교로 취임한 이래로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었다. 특히 미디어: 공리와 공동의 선(The Media : Public Interest and Common Good)에 대한 강연에서 그는 공동의 이익추구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미디어를 포함한 공공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그룹은 공동선의 개념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⁵⁸ 미디어가 공공의 관심사를 추구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미디어의 중요성과 긍정적 기능을 지지하면서 미디어가 자아 비판 능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엘리트 미디어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미디어가 수행하는 진실의 추구하고 대치될 수 있으며, 특히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 미디어는 종교단체의 의견

56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57 Leader, "Wrong, Dr Williams, but the Debate is Right," *The Observer* 10 Feb 2008.

58 Rowan Williams, "The Media: Public Interest and Common Good,"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534/archbishop-delivers-major-address-the-media-public-interest-and-common-good> (accessed 5 January 2018).

과 제안들을 단지 개인적인 견해로 취급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는 영국의 경우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디어의 엘리트 의식을 지적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에서의 비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여러 종교 공동체와 관련하여 언론의 무지가 매우 보편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사상들을 무시하고 추상적인 세속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의 중요한 기여를 막게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미디어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의미있는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대중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본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논쟁인 것이다. 미디어는 종종 대중이 건전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표명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는 비판적인 대화를 위한 포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공공의 의견을 주도하려는 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오용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이 점에 대해서는 대주교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다고 본다. 미디어는 다양한 이해와 전망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건전한 대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하며 더욱이 종교공동체와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는 것이다.⁶⁰

59 Andrew Brown, *The Guardian* 9 Feb 2008.

60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327.

대주교의 지지자들은 미디어에 고압적인 태도와 신중하게 강의 자체를 검토하거나 읽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은 오히려 대주교가 영국의 맥락에서 샤리아 법을 적용한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엘리트주의적인 현실성 없는 접근에 대해 비난했다.⁶¹ 이 강연에서 대주교의 접근론과 방법론의 문제는 대중 포럼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언론과 일반 대중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티나 비티(Tina Beattie)가 말했듯이, 강연은 일련의 처방이나 명제보다는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안적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² 그는 강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론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자주 받았었다. 윌리엄스에 대한 비평적인 책을 통해서 톰 프레임(Tom Frame)은 윌리엄스가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다루면서, 영국 정부에 의한 이라크 전쟁 참여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실제로 갈등을 관리하고 긴장을 풀어야하는 현실적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는 윌리엄스가 국제적 분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며, 기독교가 주장하는 비폭력의 비전을 주장하지만, 무력 사용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명확하고 충분한 원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주교의 위치에서 한 국가 혹은 국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고 인간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며, 윌리엄스는 신앙적, 학문적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 적용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⁶³ 프레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명확성

61 Andrew Brown, *The Guardian* 9 Feb 2008 ; See also Minette Marrin, *The Sunday Times* 10 Feb 2008; Matthew Parris, *The Times*, 9 Feb 2008.

62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63 Tom Frame, "Rowan Williams on War and Peace," in Matheson Russell, ed., *On Rowan Williams: Critical Essay*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09), 163-85.

이 결여된 이유 중 하나는 윌리엄스가 전략적 개념, 국제 외교, 국가 안보 또는 군사 전략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샤리아법에 대한 강연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 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왜 그가 이것을 제시하며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비전을 그가 추구하며, 구체적으로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기독교인과 다른 신앙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대화(dialogue)의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종교적, 세속적 갈등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방법론과 실천 모델을 제공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 간의 대화는 상호 지식과 비판적인 참여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경우, 우리는 종교 공동체와 세속사회의 여러 그룹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과정은 세속적, 종교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받는 민주사회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 종교와 세속 사회는 서로 경청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전체적인 토론에서 절대적으로 간주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다른 가치에 의해 비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을 통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3.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보완적 다원성’과 ‘세속적인 법적 독점’

강연에 대해서 비평가와 지지자가 일치하는 점은 대주교의 강연이 샤리아 법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물론 강연의 주요 초점은 샤리아 법과 영국법 사이의 의미있는 관계와 함께 그의 제안의 이론과 실제 의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대중과 언론의 초기반응의 대부분은 샤리아 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기사들은 다문화와 다종교 상황에서 법의 적용의 폭 넓은 문제를 해결을 추구하고 이문제는 단지 이슬람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이다.⁶⁴ 즉 종교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이것은 법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은데 그것은 종교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도덕적, 철학적 체제로 인해서 그 내부에 나름대로 배타적인 신학을 비롯하여 가치관, 그리고 규칙을 형성하여 있으므로 전체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게된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자율성을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법의 공정한 적용에 대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⁶⁵ 수세기에 걸쳐서 힘들게 성취한 원칙인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⁶⁶

그러나, 지지자 중 일부는 강연에서 대주교는 법률 및 공공 생활에 대해서 상호보완적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64 Leader, "Wrong, Dr Williams, but the Debate is Right," *The Observer*, 10 Feb 2008.

65 Matthew Parris, *The Times*, 9 Feb 2008.

66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토론이 계몽주의 개념이 법에 대해서 갖고있는 추상적인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치와 종교 공동체의 가치관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연다고 보았다.⁶⁷ 문제의 핵심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적인 신념과 세속적 이념이 만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추구라고 볼 수 있다. 톰 라이트(Tom Wright)는 그가 보는 관점에서 대주교의 민감하고 깊이있는 ‘상호보완적 다원성’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히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지혜로운 사회가 되도록 추구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날 당면한 깊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세속정부나 어느 단체나 기관이 법적체제를 독점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하였다.⁶⁸

마이크 히그톤(Mike Higton)은 강연의 초점이 우리 사회의 다원성 공개 대화를 옹호 할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와 종교단체 모두의 책임과 서로간의 건전한 비평을 강조함으로 실제로 강연은 종교의 공공참여에 대한 강조만이 아닌, (이성적 비평을 중요시하는) 세속적 이념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상호보완적 다원성”은 대중의 삶에 기여하는 종교공동체에서의 참여에 대한 자유를 제공 할 것이라고 보며, 한편으로 종교를 공공권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종교가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한 사회로부터 비평을 받음으로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⁶⁹ 그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속성은 온전한 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윌리엄스는 앞으로 계몽주의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법의 공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다원성, 자유, 국가의 모델을 제

67 Ibid.

68 Tom Wright, <http://euangelizomai.blogspot.com/2008/02/nt-wright-on-rowan-williams-and-sharia.html> (accessed 5 January 2018).

69 Higton, “Rowan Williams and Sharia,” 412.

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윌리엄스는 그가 제안한 모델이 단순히 보편성에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 많은 책임을 투명하고 자유를 추구함을 통해서 세속적인 독점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공 담론의 주류에서 종교적인 고립을 극복하고 세속사회와 건전한 대화에 들어가는 것이 종교와 세속사회에 대한 자유와 건전한 대화를 유추 할 수 있다.⁷⁰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 논의와 관련하여 상호 작용하는 다원성의 개념을 연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타리크 모후드(Tariq Modood)는 다문화 시민권의 지속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시민권은 권리와 참여의 사례뿐만 아니라 담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어떠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막론하고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대 세속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시민권 및 종교의 분리는 어느 민주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원적 통합과 평등의 걸림돌로 나타난다고 본다.⁷¹ “상호보완적 다원성”에 대한 이론에는 상호 책임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국가의 의무는 종교 공동체의 잠재적인 기여를 위해서 공공 영역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가 법의 독점에 대한 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공개 토론에 종교 공동체를 초청하여 공공 영역에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보완적 다원성은 종교 단체가 공공영역에서의 비평을 통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통합하도록 권장한다. 이것은 종교의 대중 참여의 관점에서 볼때, 종교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상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종교인들이 사실 이미 공공생활

70 Higton, “Rowan Williams and *Sharia*,” 417.

71 Tariq Modood,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the Anti-*Sharia* Storm,”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anti_sharia_storm (accessed 4 January 2018); Chaplin, “Legal Monism and Religious Pluralism,” 441.

에 개별적 및 집단적 의사 결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종교 공동체의 공공참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지, 각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대주교가 주장하는 상호보완적 다원성에 대해서 지지하며 공공 생활에서의 정부의 독점에 대한 여러 단체의 비평의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종교 공동체는 현대 영국의 공공생활에서 넓은 범위에서 상호 책임적인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종교 단체와 세속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또한 상호 비평적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주교가 주장한대로 샤리아 법을 무슬림들을 위해서 영국법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샤리아 법의 원칙과 가치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리함으로서 샤리아 법이 특정 종교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법 제정에 있어서 기본권이라든지, 평등권 등에 대해서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윌리엄스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속적 자유주의의 독점권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영국의 기독교가 실제로 세속주의와 많은 가치관의 부문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대치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이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독교의 세속법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주장한다.⁷² 그들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의 보편성에 대해서 토의 할때, 기본권과 평

72 Roger Scruton, "Islamic Law in a Secular World,"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secular_world (Accessed 5 January 2018).

등사상 그리고 정의 등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현대 민주주의의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서로 근본적인 가치관을 나누고 있다고 본다.⁷³ 이점은 우리가 샤리아 법을 토의 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보며, 샤리아 법의 실제적 적용보다는 샤리아 법이 가지는 기본정신과 가치관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며 또한 현존하는 법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샤리아 법과 여성의 권리

기존의 영국 법에 샤리아 법의 채택의 문제는 법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통해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특히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한적으로라도 샤리아 법이 적용될 때 영국에 있는 이슬람 여성들이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샤리아 법과 영국법 사이에서 선택할 여지는 적다고 보여진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정부가 소수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시키게된다.⁷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트 클라우센(Jytte Klausen)이라는 학자의 여성과 샤리아 법에 대한 분석은 현재의 토론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정치와 서부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는 샤리아 법의 적용은 많은 무슬림 지도자가 유럽에서 이슬람 율법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연구한 통계는 흥미로운데, 유럽 각국의 무슬

73 Mathew d' Ancona, *Sunday Telegraph*, 10 Feb 2008.

74 Matthew Parris, *The Times*, 9 Feb 2008; Beattie,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Mary Ann Sieghart, *The Times* 14 Feb 2008, Joan Smith, *The Independent* 10 Feb 2008; Johann Hari, *The Independent*, 11 Feb 2008; Sami Zubaida, "Sharia: Practice of Faith, Politics of Modernity,"

림 여성들에게 ‘세속법이 샤리아 법을 존중하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과 법률 학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한 경우는 덴마크(9.4%), 스웨덴(14.3%), 프랑스(8.3%), 독일(10.3%)와 네덜란드(13.0%)인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매우 높은 70%이었다. 크라우센은 이 이유로 영국에 이민온 무슬림들의 배경이 보다 보수적이며 또한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가정법의 적용 등으로 보았다.⁷⁵ 그러나 무슬림 공동체의 구성원이 샤리아 법원이나 영국의 민사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크라우센은 이것은 매우 부정적이며, 더 나아가서 법앞의 평등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샤리아 법의 적용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첫째, 보수적 이슬람 지도자와 진보적 이슬람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게 되며, 둘째, 보수적 견해를 가진 이슬람 여성 지도자들도 초차 강하게 반대하며; 셋째, 남성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법적 힘을 제공하며 여성이 불리함을 당하게 되며, 넷째, 결국은 유럽에 있는 이슬람 사회의 분리와 세속 사회와의 화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⁷⁶

크라우센의 영국에서의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윌리엄스는 국가의 법적 독점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만, 영국에서 샤리아 법의 적용을 제안 함으로 그가 의도하였던 국가 정책에 대한 그의 깊은 도전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을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회와 세속적인 사회와의 화합을 그의

75 Jytte Klausen, *The Islamic Challenge: Politics and Religion in Western Europe* (Oxford: OUP, 2005).

76 *Ibid.*, 55-65.

논제를 통해서 오히려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의도하였던 논쟁은 종교인과 세속사회의 견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결과를 유도하여졌다고 보여진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들은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상호 보완적인 역동성을 통해서 체계화 되었으며 사회의 한 집단이나 종교공동체나 우선권을 두지 않는다. 세속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열려 있어야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종교법이 일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 아래의 평등의 개념과 대치 될 수 있다. 유엔의 인권 선언의 경우와 같이, 세속적 법률 제도는 종교적 가치와 원칙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사실은 이 모두 세속 사회와 종교 단체에 의해 소중히 여겨지며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샤리아 법에 대한 논쟁에서 잘못된 점은 세속법과 종교법이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세속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부각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교회나 종교의 공공성을 다룰때 또한 교회의 대중 참여를 토의할 때 이것은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해 싸우면서 공공 영역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공 생활에서 종교 사상과 가치관의 기여를 재확인하고, 특히 세속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여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V. 결론

대주교의 강연에 대한 위의 토론은 교회가 세속적이고 한편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참여하는 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린넬

www.kci.go.kr

케이디(Linell E. Cady)는 신학은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더 나아가서 적절한 논증의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⁷⁷ 윌리엄스는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가 종교 문제 이외의 공공 문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교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샤리아 법에 대한 강연에서 대주교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 사이의 구별을 확인하는 듯이 여겨졌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본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세속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큰데, 이것은 정치, 사회적 저항이나, 가난하고 소외된자를 위한 돌봄, 그리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샤리아 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종교법의 적용보다는 그 가치성을 법에 적용하여 세속법이 더욱 성숙하게 다양한 종교,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수용하는데 치중하여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77 Linell E. Cady, *Religion, Theology and American Public Life*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64-65.

■ 참고문헌

- Anthony, Andrew. *The Observer*, 10 Feb 2008.
- Areto, A., and J.L. Cohe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Atherton, John. *Public Theology for Changing Times*. London: SPCK, 2000.
- Beattie, Tina. “Rowan Williams and *Sharia* Law.”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sharia_law_uk (accessed 29 January 2018).
- Breitenberg, E. Harold. “To Tell the Truth: Will the Real Public Theology Please Stand Up?.”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vol.23, no.2 (2003): 55–96.
- Breyfogle, Todd. “Time and Transformation: A Conversation with Rowan Williams.” *Cross Currents* (Fall 1995): 293–311.
- Brown, Andrew. *The Guardian*, 9 Feb 2008.
- _____. *The Guardian*, 9 Feb 2008.
- _____. *The Guardian*, 9 Feb 2008.
- Cady, Linell E. *Religion, Theology and American Public Life*.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Calhoun, Craig.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Chaplin, Jonathan. “Legal Monism and Religious Pluralism: Rowan Williams on Religion, Loyalty and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vol.2, no.4 (2008): 418–41.

www.kci.go.kr

- Christian Century (July 31–August 13, 2002).
- Crossley, Nick and John Michael, Roberts, eds., *After Habermas: New Perspectives on the Public Sphere*. Oxford: Blackwell, 2004.
- d’Ancona, Matthew. *The Sunday Telegraph*, 10 Feb 2008.
- Elliot, Alison. “Doing Theology: Engaging th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3–4, 290–305.
- Fiig, Christina. “A Powerful, Opinion-forming Public? Rethinking the Habermasian Public Sphere in a Perspective of Feminist Theory and Citizenship.” *Distinktio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12, no.3 (2011): 291–308.
- Finlayson, James G. *Haberma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UP, 2005.
- Forrester, Duncan B. *On Human Worth: A Christian Vindication of Equality*. London: SCM Press, 2001.
- Frame, Tom. “Rowan Williams on War and Peace.” in Matheson Russell, ed., *On Rowan Williams: Critical Essay*.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09. 163–85.
- Fraser, Nancy. “Transnationalizing the Public Sphere: On the Legitimacy and Efficacy of Public Opinion in a Post-Westphalian World.” *Theory, Culture & Society*, vol.24, no.4 (2007): 7–30.
- Gledhill, Ruth, *The Times* 11 Feb 2008.
-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 Thomas Burger Cambridge: Polity, 1989; original

- publication in German in 1962.
- Hari, Johann. *The Independent*, 11 February 2008.
- Higton, Mike. "Rowan Williams and *Sharia*: Defending the Secula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vol.2, no.4(2008) 400–17.
- Himes, Michael J. Himes, & Kenneth R. Himes. *Fullness of Faith: The Public Significance of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93.
- Hollenbach, David. "Public Theology in America: Some Questions for Catholicism After John Courtney Murray." *Theological Studies* vol.37, no.2 (June 1976).
- _____. *The Global Face of Public Faith: Politics, Human Rights, and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3.
- Kim, Sebastian & Kirtseen, Kim.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P, 2015.
- Klausen, Jytte. *The Islamic Challenge: Politics and Religion in Western Europe*. Oxford: OUP, 2005.
- Koller, Andreas. "The Public Sphere and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An Introduction." *Social Science History*, vol.34, no.3 (2010): 261–290.
- Koopman, Nico. "Some Comments on Public Theology Today."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17 (November 2003): 3–19.
- Leader. "Wrong, Dr Williams, but the Debate is Right." *The Observer*

10 Feb 2008.

Marrin, Minettee. *The Sunday Times*. 10 Feb 2008.

_____, *The Sunday Times*. 10 Feb 2008.

Modood, Tariq. “Multicultural Citizenship and the Anti-Sharia Storm.”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anti_sharia_storm (accessed 4 January 2018).

Moltmann, Jürge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Press, 1999.

_____.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London: SCM Press, 1999.

Murray, John Courtney. *We Hold These Truths: A Catholic Reflections on the American Proposition*. New York: Sheed and Ward, 1960.

Neuhaus, Richard John. *The Naked Public Square: Religion and Democracy in America* 2nd e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6.

Parekh, Bhikhu.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New York: Palgrave, 2000.

Parris, Matthew. *The Times*. 9 Feb 2008.

Reinelt, Janelle.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for a Global Age.” *Performance Research* vol.16, no.2 (2011): 16–27.

Scruton, Roger. “Islamic Law in a Secular World.” http://www.opendemocracy.net/article/faith_ideas/europe_islam/secular_world (Accessed 5 January 2018).

Selby, Jennifer A. Selby. *Questioning French Secularism*. New

www.kci.go.kr

- York: Palgrave, 2012.
- Smith, Joan. *The Independent*. 10 Feb 2008.
- Stackhouse, Max. "Public Theology and Ethical Judgement."
Theology Today, vol.54, no.2 (1997): 165-79.
- _____.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Storrar, William & Andrew Morton, eds.,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 New York: T & T Clark, 2004.
- Sturcke, Janes at el. *The Guardian*, 8 February 2008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Harvard: Harvard UP, 2007.
- The Observer*. 10 February 2008.
- The Sunday Telegraph*. 10 February 2008
- The Times*. 10 February 2008.
- The Times*. 9 February 2008.
- Thiemann, Ronald F.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John Knox Press: Louisville, Kentucky, 1991.
- Tracy, David. *The Analogical Imagination: Christian Theology and the Culture of Pluralism*. New York: Crossroad, 1981.
- Valentin, Benjamin. *Mapping Public Theology: Beyond Culture,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Continuum, 2002.
- Warsi, Sayeeda. *The Sunday Telegraphy*. 10 February 2008.
- Williams, Rowan. "Presidential Address." *The Church Times*. 15 February 2008

- _____. “The Media: Public Interest and Common Good.”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534/archbishop-delivers-major-address-the-media-public-interest-and-common-good> (accessed 5 January 2018).
- _____. <http://rowanwilliams.archbishopofcanterbury.org/articles.php/1137/archbishops-lecture-civil-and-religious-law-in-england-a-religious-perspective> (accessed 20 January 2018).
- Wright, Tom. <http://euangelizomai.blogspot.com/2008/02/nt-wright-on-rowan-williams-and-sharia.html> (accessed 5 January 2018).

■ ABSTRACT

Rowan Williams' Lecture on *Sharia* La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Sebastian Kim

Public theology is Christians engaging in dialogue with those outside church circles on various issues. It involves urging Christians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domain and to converse with citizens on issues wider than religious matters. Public theology proceeds by critical, reflective, and reasoned engagement of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The lecture by Archbishop Rowan Williams in 2008 on “Civil and Religious Law in England: A Religious Perspective” provides a very good example of this.

In this article, I shall first examine key aspects of public theology, including theological foundations of public theology and its meaning in the public sphe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heology, I shall then summarize the lecture given by Archbishop Williams on the controversial topic of *Sharia* Law. His lectur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n overall discussion of the rights of religious

www.kci.go.kr

groups within a secular state, especially the meaning of *Sharia* law for the Muslim community in the UK, and its implications; second, a critique of the validity of the legal monopoly of the secular stat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plural societies, arguing that this in fact goes against the spirit of the Enlightenment and also does injustice to communities and individuals who hold various affiliations and commitments; and third, a treatment of three objections to his proposal regarding *Sharia* law and a suggestion that the key perspective should be the promotion of what he sees as “interactive pluralism” in which a “complementary” legal system helps in the promotion of human dignity for all members of society by allowing the full expression and exercise of their aspirations.

Afterwards, I shall discuss questions regarding *Sharia* law: first, a rationale for the involvement of the Church in public affairs; second, the role of media in public discussion; third, “secular legal monopoly” versus “interactive pluralism”; and lastly, women’s rights. Finally, I argue that instead of introducing *Sharia* law into the British context, permeating *Sharia* principles and values is far more effective for cultural change tha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law.

Keywords: Public Theology, *Sharia* Law, Interactive Pluralism, Rowan Williams

논문투고일: 2018.02.07 논문심사일: 2018.03.12 게재확정일: 2018.03.19